

배포 2026. 7. 14.(화) 08:00

보도시점 (인터넷) 2026. 7. 14.(화) 12:00
(지면) 2026. 7. 15.(수) 조간

인공지능(AI) 한국어교육 시스템, 이주배경학생의 생생한 목소리 담는다

- 전국 22개 팀, 15개국 배경 이주배경학생 60여 명 학생자문단 참여
- 올해 12월까지 한국어교육 시스템 관련 개선 아이디어 및 우수 학습사례 발굴
- 【관련 국정과제】 101-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정제영)은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한국어교육 시스템인 「모두의 한국어」의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학생자문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모두의 한국어」(korean.edunet.net)는 이주배경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쉽고 재미있게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한국어 능력 진단부터 학생별 학습 관리, 수준별 맞춤형 학습 콘텐츠 수강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 ('26.6.) 7,223개 기관(학교, 교육청 등), 29,198명(학생 18,913명, 교사 6,350명, 일반 3,935명) 사용 중

올해 처음 운영되는 학생자문단은 「모두의 한국어」를 실제 사용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시스템 개선에 직접 반영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콘텐츠 개발을 위해 기획되었다.

학생자문단은 교사와 이주배경학생의 팀 단위로 구성되며, 최종 22개 팀이 선발되었다. 부모의 출신국* 기준 총 15개국 배경을 가진 이주배경학생 60여 명과 지도교사 22명이 참여하며, 올해 12월까지 활동한다.

* 베트남, 중국, 러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감비아, 네팔, 방글라데시, 브라질, 인도네시아, 코트디부아르

< 학생자문단 활동사진 >



위촉장 수여

한국어 능력 진단검사 참여

어휘숙삭 학습하기

학생자문단의 학생과 교사가 매월 「모두의 한국어」를 직접 활용하며 느낀 장점과 개선점을 전달하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를 적극 검토하여 시스템 기능을 확대 및 개선한다. 이 외에도 학생자문단은 「모두의 한국어」를 활용한 우수 학습사례 발굴과 시스템 활용에 대한 동영상 촬영 등의 대외 홍보 활동에도 참여한다.

< 학생자문단 의견 및 기능 개선 계획 >

팀명	학생자문단 의견
할 수 있다. 한국어 완전정복!	▶ "PC에서는 되는데 태블릿으로는 작동이 안 되는 기능이 있어요."
여중의 한국어	▶ "과학 수업 등 전문 교과목의 학습 맥락을 반영한 콘텐츠가 추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는 한국어 요원	▶ "모두의 타자연습을 하니까 한국어 쓰는 게 조금 쉬워졌어요." ▶ "모두의 한국어에 팝업창을 지우기 어려워요."
헤이 써티 (Hey.Thirty)	▶ "퀴즈를 시작하기 전에 문제 수와 예상 소요 시간, 난이도 등을 알려 주면 좋겠다."

학생자문단 팀별 「모두의 한국어」 활용 후기

- (한국어마스터팀, 자문단 학생) "한국어 실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답답했는데 「모두의 한국어」로 수준을 확인하고 말하기, 쓰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하니 향후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 목표를 정하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어요."
- (도담도담 공부반팀, 자문단 학생) "교과서에 나오는 어려운 한국어 단어들을 쉽고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우리만의 도구와 시간이 생겨서 든든합니다."
- (한글쑥쑥 마음쑥쑥팀, 지도교사) "최근 입국한 학생은 기본 어휘와 표현을 익히고, 기존 학생들은 문법 표현을 확장하며 동일한 주제로 함께 학습할 수 있어 학생별 한국어 수준에 맞는 개별화 수업이 가능했습니다."
- (우라! 분명한국어팀, 지도교사) "문법을 설명한 후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녹음하고 써보며 말하는 과정이 좋았고 학생 모국어로 질문을 들려줄 수 있어서 설명이 한결 수월해요."

노진영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모두의 한국어』를 직접 사용하는 이주배경 학생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세심하게 보완해, 한국어를 보다 쉽고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모두의 한국어』 (korean.edunet.net) 개요
2. 『모두의 한국어』 학생자문단 운영 개요

담당 부서	학생지원국 학생지원총괄과	책임자	과장	나현주 (044-203-6521)
		담당자	사무관	박지애 (044-203-6197)
			교육연구사	강영민 (044-203-6195)
			교육연구사	류향승 (044-203-6611)



붙임1

『모두의 한국어』 (korean.edunet.net) 개요

□ 추진 배경

- 이주배경학생 증가('25년 202,208명)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쉽게 AI 기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주요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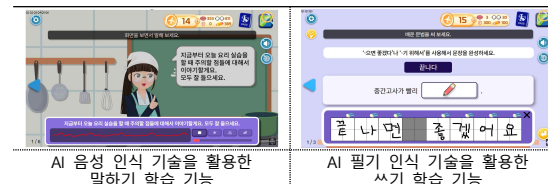
- (진단·성취도 검사) 한국어 영역별(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진단 검사 및 성취도·척도 검사 기능 제공
- (한국어학습) 한국어 진단 결과 및 학습자의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한국어 학습 콘텐츠 추천

콘텐츠 구분	학교급	현황
모두를 위한 한국어 (생활한국어)	초등	4단계 (본교재) 394차시/(익힘책) 256차시
	중등	4단계 (본교재) 394차시/(익힘책) 256차시
문법쑥쑥	초등	4단계 32단원 128차시
	중등	4단계 32단원 128차시
어휘쑥쑥	초등	통합교과 48차시
		국어(1~6학년) 216차시
		수학(1~2학년) 80차시
한국어예비과정	초등	50차시
합 계		1,950차시

- (인공지능 튜터) 한국어 교재의 학습 주제를 기반으로 대화형 (듣기·말하기·읽기·쓰기) 학습 기능 제공
- (학습관리시스템) 온·오프라인 한국어 수업 및 개별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관리 기능* 제공

* 수업·과제 관리, 한국어 사전, 가정통신문 다국어 번역 등

- 음성·필기 인식 AI 기술을 접목하여 상호작용에 기반한 학습 설계



□ 운영 배경

- 현장 사용자 경험을 기반으로 모두의 한국어 시스템과 콘텐츠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이용 편의성 및 서비스 품질 제고

□ 운영 개요

- (활동기간) 2026년 6월 ~ 12월(6개월)
- (활동인원) 22개 팀(지도교사 22명, 학생 60명)
 - 팀별 지도교사 1명과 이주배경학생 1~4인으로 구성

< 지역·학교급별 학생자문단 현황 >

구분	서울	인천	경기	충북	전남	경남	총팀수(학생수)
초등	2(5)	1(2)	5(17)	1(4)	1(4)	1(4)	11(36)
중등	중	5(8)	-	-	-	2(4)	7(12)
	고	1(1)	-	1(3)	1(4)	1(4)	4(12)
합계	8(14)	1(2)	5(17)	2(7)	2(8)	4(12)	22(60)

< 학생자문단 이주배경 국가별 사용 언어 현황 >

부모국적	감비아	나이지리아	네팔	러시아	몽골
사용언어	영어	영어	네팔어	러시아어	몽골어
부모국적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사용언어	벵골어	베트남어	포르투갈어	우즈베크어	인도네시아어
부모국적	중국	카자흐스탄	코트디부아르	파키스탄	필리핀
사용언어	중국어	카자흐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우르두어, 영어	필리피노어, 영어

- (역할) 모두의 한국어 활용 관련 현장 의견 수렴 및 홍보
 - 지도교사와 학생이 「모두의 한국어」를 활용한 교육활동을 운영한 후 학습자 관점에서 시스템 활용 사례 및 개선 의견 제안
 - ※ [활동 예시] 학생자문단 로그인 및 한국어 콘텐츠 탐색, 「모두의 한국어」 활용 학습 과정 및 학생 의견(난이도, 흥미도 등) 수렴, 불편한 점을 찾아서 개선 의견 제안 등
 - 모두의 한국어 우수 학습 사례 발굴 및 홍보 동영상 촬영 등 대외 홍보 활동 참여
- (활동지원) 학생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낸 지도교사와 우수 활동 팀·학생을 선정하여 상장 및 부상 수여